



### 광주환경공단, '2024년 청렴주간' 운영

광주환경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2024년 청렴주간'으로 지정하고,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다. (사진)

1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청렴주간을 운영했으며, 반부패 청렴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지난달 25일에는 광주축구전용구장 일원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FC와 함께하는 광주 청렴데이 캠페인'에 강기정 시장과 김병수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부채 나누주기, 청렴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 등 청렴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노인학 특강 성료

광주시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30일 고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 릴레이 특강을 성황리 개최했다. (사진)

1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노인학 릴레이 특강은 고령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노인 기초상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및 사회참여 △건강 △노후보장 △문화여가 △세대교류 △시민교육 △광주시 고령정책 등을 주제로 지난 5월부터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운영 중이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는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강 대표는 1973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시작해 50년 간 증권업계에 종사한 자산관리 전문가다. '행복 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를 주제로 연령대에 따른 자산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노병하 기자



### 광주경총 농협 광주본부, 쌀 소비 촉진 협약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와 식량안전 강화와 쌀 소비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협약은 △식량안전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 문화 형성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내용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쌀 200포를 기탁하고, 광주경총은 대상 기관을 찾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이현호 본부장은 "광주경총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근로자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취약계층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해 쌀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양진석 회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민과 회원기업 가정에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광덕고, 3세대 자율주행 '오토트래시' 제작

광덕고등학교가 지난달 28일 교내 전용도로를 운행할 3세대 자율주행차량 '오토트래시'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토트래시는 차량 전면에 부착된 카메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머신러닝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아용 전동차 차체에 학생들이 제작한 시스템을 연결해 자율주행을 구현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오토트래시는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라는 SW동아리 '오소프'의 3단계 프로젝트 결과물로서 학생들의 지난 5년간의 노력과 결실이 집약돼 있다. 특히, 2017년부터 매 학기 진행해 오고 있는 오소프 동아리만의 선후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단계에서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오토트래시는 2일부터 교내 쓰레기 이송을 위해 운행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 광주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27일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 이불을 전달했다. (사진)

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고령자 158세대 가정의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불전달은 광주도시공사와 주택관리공단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올여름, 광주도시공사는 △온열질환 예방실시 △여름나기 후원금 전달 △건강식품 지원 △여름이불 지원 등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나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돕고자 이불 전달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광산경찰, 대형차량 대상 교통 안전 교육

광주광산경찰은 최근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광산경찰은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덤프트럭·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공사현장과 화물 차량 차고지 등을 방문, 최근 교통사망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운전자들에게 교차로에서 우회전 주의사항 및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체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등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이관형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대형차량의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18기념재단 '교육 감사패' 수상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개최된 '5·18 기념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창립 30주년 유공 포상' 교육부문 감사패를 수상했다. (사진)

5·18기념재단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5·18 교육을 위한 5·18 교과서와 교육 수업자료 개발, 5·18 교육 내실화, 5·18 교육 전국화와 세계화 등에 기여했다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강주비 기자



### 광주 서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

광주 서구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구청 들볼홀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파파보이스 공연, 쿠킹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 서구 제공



### 광주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광주 서구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창동 송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드리 보존회와 함께 김매기를 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개최했다. 광주 서구 제공

### '독도는 우리땅' 부른 엔믹스...日팬들 "탈덕한다" 경고

인기 걸그룹 엔믹스(NMIXX)가 유튜브 방송에서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불렀다가 일부 일본 누리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

지난달 22일 엔믹스는 유튜브 채널 'MMTG 문명특급'에 출연해 방송인 재재(방송인 이은재)로부터 '믹스 팝'(여러 장르를 이어붙여 하나의 곡으로 만들)을 소개받았다.

방송에서 소개된 믹스 팝은 맥락 없이 멜로디가 비슷한 노래를 이어 부르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선 재재가 노래 '독도는 우리 땅'에 그룹 샤이니의 노래 '루시퍼', 동요 '악어 떼' 등을 섞어 노래했고, 엔믹스 멤버들도 한 구절씩 나눠 해당 곡을 불렀다.

해원이 "나를 묶고 가둔다면"이라고 선창하고 설윤이 "뱀길 따라 이백리", 지우가 "버터풀 야도란", 릴리가 "새들의 고향", 배이가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규진이 "악어 떼가 나온다" 순으로 노래를 불렀다.

문제가 된 건 설윤과 배이가 부른 '뱀



길 따라 이백리'와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였다. '독도는 우리땅'을 완창한 건 아니지만 일부 구절을 부르면서 일본 누리꾼들은 불쾌함을 표하고 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일본 팬들 생각 안하는 거냐", "엔믹스에 돈을 썼던 게 유감이다", "회사(JYP)에서 역사 교육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 누리꾼들은 이에 대항하고 있다. "일본 팬들은 역사 교육 다시 받아라", "이게 논쟁할 일인가", "지금까지 일본 시장 눈치 보는 가수들이 많았는데 '독도는 우리땅'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진짜 K-POP 가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민현기 기자